

애국심: 자유에의 위협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애국심: 자유에의 위협
1910 년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 외에 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는 〈애국심: 자유에의 위협〉만을 옮긴다.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태어난 곳, 어릴 때의 추억과 희망과 열망과 꿈이 있던 곳에 대한 사랑이 애국심인가? 순진한 어린 시절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우리도 저 구름처럼 빨리 달리고 싶었던 그런 고향에 대한 사랑이 애국심인가? 애국심의 고향은 수십억 개의 반짝이는 별들을 세던 곳이고, 밤의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작은 심장이 고동치던 곳인가? 또 그곳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비처럼 날아 그들처럼 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던 곳인가? 아니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용감한 이야기와 정복의 이야기를 듣던 곳인가? 간단히 말해 애국심이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놀던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고 소란히 묻어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사랑인가?

애국심이 이런 것이라면 오늘날 미국인 중 애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의 놀이터는 공장과 광산과 제재소이고, 새의 지저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멀었기 때문이다. 옛 전사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 수 없다. 오늘날 어머니의 이야기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국심은 무엇인가?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애국심은 악당이 마지막으 의지하는 곳이지요.”

애국심에 반기를 든 우리 시대의 위인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살인자 양성을 정당화하는 원천이라고 규정한다. 살인자라는 직업은 생필품인 구두, 의복, 집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좋은 보수와 영예를 보장받는다.

또한 사람 위대한 반애국주의자인 구스타프 허브 (Gustave Hervé) 는 애국주의를 간단히 미신이라고 부른다. 종교보다 더 해롭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미신이 애국주의라는 것이다. 종교적 미신은 인간이 자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데서 나왔다. 원시인은 천둥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았을 때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유사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나 기타 여러 자연 현상에서 초월적 힘을 보았다. 이에 비해 애국주의는 거짓말과 허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미신이다. 인간에게 자존심과 권위를 빼앗고 교만함과 독단을 증대시키는 미신이다.

확실히 독단과 교만과 이기주의가 애국주의의 핵심적 요소들이다. 그 예를 제시해보겠다. 애국주의는 지구가 여러 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강철 문이 그 경

군사적 전술로 훈련하는 교과 과정에는 군사적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젊은이의 마음은 정부가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 게다가 이 땅의 젊은이들은 육군과 해군에 입대하라는 현란한 포스터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정부의 대변자는 젊은이들에게 군에 입대하라고 이렇게 외친다.

“세계를 관광할 수 있는 멋진 기회.”

이리하여 순진한 젊은이들에게도 덕적으로 애국심을 갖도록 유인하는 군사적 유혹이 전국을 휩쓸고 간다.

미국의 노동자는 군과 국가와 연방 정부 등의 손아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생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들에 대해 혐오감과 반감을 갖는다. 하지만 단지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선진적 교육으로 군인들을 교육해야 한다. 반애국적인 문헌을 통해 군인을 계몽시켜 군인이라는 직업의 무서운 실체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 대한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 의식화시켜야 하고 자기 노동으로 자기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실히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런 의식화를 정부 당국자는 가장 두려워한다. 군인이 급진적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반역의 의식이고 조되었다는 증거이다. 이제 급진적 팸플릿을 군인들이 읽게 되면 반역의 분위기는 지극히 고조될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항상 진보를 향한 모든 발걸음을 다 반란이라고 짓밟았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진지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어쩌면 공장보다 병영에 진리를 확산시키는 게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애국이라는 거짓을 파괴해 버릴 때 모든 민족이 하나의 형제로 통일되는 그런 위대한 사회 구조, 곧 참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 자리를 찾아 전국을 누비거나 빵을 타려고 줄을 서 있거나 시당국에서 마련한 노숙자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것보다는 군인이 되는 게 낫다. 어찌 되었건 한 달에 13 달러는 벌수 있고, 하루 세 끼 식사와 잠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군이 인간다운 곳이 될 수는 없다. 군 당국자들은 육군과 해군에 지원 하는 자원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불평한다. 이 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군 지원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미국의 보통 사람들 중에는 군복을 입느니 차라리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택하겠다는 자립의 정신과 자유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생각이 있는 남자와 여자라면 애국주의란 너무나 협소하고 제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억압 받는 국가들 간에 국제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했다.

이 연대의식은 미국의 광부와 동포인 자본가 사이의 유대감보다 미국의 노동자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사이에 보다 조화로운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연대의식을 갖게 될 때 외국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한 마음이고 다 같이 고용주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신을 위해 할 도리를 다 했다. 네 밥벌이는 네 스스로 하라.”

이 연대의식은 심지어 군인들의 의식까지도 각성시킨다. 군인들도 인류라는 대가족의 한 성원으로 편입된다. 과거 투쟁의 역사에서 가장 확고한 연대의식에 바탕해 투쟁의 힘을 얻은 사례들이 있다. 1871 년 파리로 댈 Paris Commune 때는 파리의 군인들이 동지애적 연대의식으로 투쟁에 나선 형제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20 세기 초에는 연대의식에서 힘을 얻어, 러시아 전함에 탄수병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 세계적 연대의식은 전 세계의 억압 받고 짓밟히는 자들이 착취하는 자에 대한 반기를 일으키게 했다.

유럽의 프롤레타리아는 이런 연대의 위대한 힘을 깨닫고 애국주의와 그 애국주의의 피비린내나는 화신인 군국주의에 맞섰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와 독일과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의 감옥을 가득 채웠다. 많은 사람들이 구습과 미신에 과감히 대항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운동은 노동 계급에 국한되지 않았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저항 운동에 동참했다. 예술과 과학과 문학계의 저명한 사람들이 이 운동을 주창했다.

미국도 이런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주의 정신이 이미 모든 계층 속으로 침투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의 군사주의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아무리 애려고 해도 군사주의의 온상인 자본주의의 부패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주의 붕괴의 조짐은 이미 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할 게 분명하다.

“당신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시오. 내가 인간으로만 들어주겠소.”

계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우연히 특정한 장소에 태어난 자는 다른 지역에 태어난 자보다 자신이 더 낫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선택된 장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싸우고 죽이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어릴 때부터 다른 민족, 예컨대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독기를 품게 된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는 신에게 선택된 자로서 자기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육군과 해군을 보유하고 더 많은 전함과 무기들을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 역시 이런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무려 4 억 달러를 군비에 쏟아부었다. 이 4 억 달러는 다름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애국심을 지닌 자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세계주의자 Cosmopolitan 이다. 부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고향 같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 점을 잘 안다. 부유한 미국인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 독일에서는 독일인, 영국에서는 영국인이 아닌가? 이들은 미국 공장의 어린 노동자와 면화 노예들이 생산한 코스모폴리탄적 물건들을 걸치고 흥청망청하지 않는가?

그렇다. 부자들의 애국심이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차르 같은 독재자에게 사소한 재난이 생겼을 때 위로 전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장식이다. 러시아의 세르기우스 (Sergius) 황제가 러시아 혁명 분자에게 처형 당했을 때 미국의 루스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위로 전문을 보냈듯이 말이다.

애국주의란 교활한 살인자 디아즈 (Diaz) 같은 자를 지지한다. 이 자는 멕시코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미국 내 멕시코 혁명 주의자들을 체포하여 아무런 혐의도 없는 데도 미국 감옥에 투옥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애국심은 부와 권력을 쥔 자의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먹히는 것이 애국심이다. 볼테르 (Voltaire) 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제 (Frederick the Great, Frederick II) 에 관한 역사적 교훈이 떠오른다. 볼테르가 프리드리히에게 말했다.

“종교는 사기지만 대중들을 위해 꼭 존속되어야 합니다.”

애국심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래 통계를 살펴 보면 이 말의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사반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육군과 해군에 투입된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런 군비 증가에 깜짝 놀랄지 모르겠다. 1881 년에서 1905 년까지 편 의 상 5 년 단위로 군비 증가 상황을 살펴보자. 이 기간 동안 몇몇 강대국들의 육군과 해군에 들어간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영국은 1881 년에서 1905 년 사이에 군비가 2,101,848,936 달러에서 4,143,226,885 달러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3,324,500,000 달러에서 3,455,109,900 달러로, 독일은 725,000,200 달러에서 2,700,375,600 달러로, 미국은 1,275,500,750 달러에서 2,650,900,450 달러로, 러

시아는 1,900,975,500 달러에서 5,250,445,100 달러로, 이탈리아는 1,600,975,750 달러에서 1,755,500,100 달러로, 일본은 182,900,500 달러에서 700,925,475 달러로증가했다.

여기서언급한각국의군비를 5 년마다검토했다. 1881 년에서 1905 년사이 영국육군에투입된비용은 4 배, 미국의경우는 3 배, 러시아는 2 배, 독일은 35%, 프랑스는 15%, 일본은거의 5 배증가했다. 이들국가들이 1905 년까지 25 년동안투입한전체비용중육군에투입한비용의증가율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영국은 20% 에서 37%, 미국은 15% 에서 23%, 프랑스는 16% 에서 18%, 이탈리아는 12% 에서 17%, 일본에서는 12% 에서 14% 이다. 반면독일의경우는 58% 에서 25% 로그비율이줄어들었다는사실이흥미롭다. 이렇게육군에 투입된지출비용이줄어든주요이유는다른데투입된액수가많아졌기때문이다. 다만 1901~1905 년기간만놓고보면군에지출된비용이이전의다른기간동안보다훨씬더높다. 통계상으로는국가전체수입중육군에투입된비용이가장높은나라들은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순이다.

강한해군을만들기위해투입된비용역시인상적이다. 1905 년까지 25 년동안해군에투입된비용의증가를국가별로보면다음과같다. 영국 300%, 프랑스 60%, 독일 600%, 미국 525%, 러시아 300%, 이탈리아 250%, 일본 700% 액수측면에서는영국을제외하면미국이해군에가장많이투자를했다. 그어느나라보다도미국의해군육성비용은국가전체투자액중가장많은액을차지한다. 1881~1885 년기간에는미국해군의비용이국가전체비용중 6.20% 를차지했는데그총액은 1890 년까지 6.60% 로, 1895 년까지는 8.10%, 1900 년까지는 11.70%, 그리고 1901~1905 년에는 16.40% 를차지했다. 그리고지금도그비율이계속증가하고있을것이를림없다.

군비증가내역은인구 1 인당세금내역을계산해보면보다확실히알수있다. 앞에서제시한 25 년의기간동안 1 인당세금증가액을국가별로비교해보면아래와같다. 영국 18.47 달러에서 52.50 달러, 프랑스 19.66 달러에서 23.62 달러, 독일 10.17 달러에서 15.51 달러, 미국 5.62 달러에서 13.64 달러, 러시아 6.14 달러에서 8.37 달러, 이탈리아 9.59 달러에서 11.24 달러, 일본 86 센트에서 3.11 달러.

국민 1 인당부담비용을대략적으로살펴봐도군비로인한경제적부담이어느 정도인지알수있다. 이런자료를바탕으로내릴수있는확실한결론은육군과해군에투입된비용이현시점에서계산된각국의인구증가율보다훨씬높다는것이다. 달리말해군비부담이증가하면서각국은점차인력과자원을고갈시키고있다.

이런쓸데없는낭비를하게된원인이바로애국심이다. 이비용이면질병을앓고 있는일반인을치료하고도남는돈이다. 그런데도애국주의는여전히극성을부린다. 사람들에게계속애국심을가지라고촉구한다. 애국심때문에쓸모없는비용을치르고, 국방을책임지는자들을먹여살리고심지어자기자식을희생시키면서까

나그는더큰인간의자존을되찾았다. 어찌되었든인간의자존이라도되찾았으니 3 년간감옥에서썩은대가는받은셈이다.

최근한신문기사에서미국의군상황에관한글을쓰는사람이독일에서는군인이민간인보다우월한힘을행사한다는사실에대해논평을했다. 여러이야기들중 그의요점은우리공화국정부가다른건물라도독일과는달리모든시민에게평등한 권리를보장한다며그것만으로도공화국은존재할만한이유가충분하다는것이다.

미국이평등하다고생각하는이기자는벨 (Bell) 장군이통치하는애국적정권이콜로라도주를통치하고있을때그곳에있지않았음ibun명하다. 벨장군은콜로라도에서애국심과공화국이라는이름으로사람들을군인으로뽑아진흙탕에굴리고국경선을넘나들게만들고온갖종류의수치를다당하게했다.

이런모습을그기자가봤다면아마생각을바꿨을것이다. 이콜로라도사건은미국이군사강국으로성장하면서벗어진유일한사건이아니다. 파업이발생하면군인들이권력을쥐고있는자들을구원하려달려간다. 파업현장에서는마치로마황제의군위병처럼거만하고도잔인하게행동한다. 그렇게하도록인정한군법이라는것이우리에게있다. 이군법을그기자는잊고있는가?

글을쓰는사람들이지나가장큰문제점은현시사에대해아주무지하다는점이다. 게다가정직함도결여되어있어말해야할이야기를하지도않는다. 이런상황에서무지막지한군법이별논의의거치지않고일반인에게널리홍보도되지않은채의회를통과했다. 그군법은대통령에게일반시민들의무적으로군인으로징집할 권리를부여했다. 즉국가방위가필요하다면평화롭게사는시민을살인자로돌변시킬 권리를대통령에게부여한것이다. 말이국가방위이지실제로는대통령을정점으로한특정정당의이익을지키기위한것이다.

한기자는미국에서와같은군사주의는해외에서절대있을수없다고주장한다. 그이유는미국의경우는자발적으로군인이되는반면유럽에서는의무복무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하지만여기서두가지중요한사실을고려해야한다.

첫째, 유럽에서는징집제때문에전계층에걸쳐군사주의에대한깊은혐오감을낳았다. 많은젊은이들이군에징집되지만군에들어간다음에도무슨수를써서라도군에서나오려고한다.

둘째, 강제적으로징집하여군대를유지하려는군사주의로인해거센반군사적운동을야기했다. 이반군사적운동을유럽열강들은그무엇보다더우려하고있다.

어쨌든자본주의최대의요소는군사주의이다. 군사주의가왜해되는순간자본주의도흔들리게된다. 미국에는징집제도가실시되지않는것이사실이다. 강제로남자들이군에끌려가지않는다. 그러나우리는스스로의필요때문에군에입대하는사람이많고, 그래서보다확고한군사력을유지하고있다. 경기불황때엄청난군입대지원자가몰리는것은사실이다. 군사주의의일에종사하는일이매력적이거나명예로워서그러는것은아니다.

에들어가서군생활을마치고나면스스로옛직업과는전혀다른일을찾는다. 그저 흥분하고모험이나감행하도록훈련받고그러면서게으른습성까지갖게된군인들은평화로운일들이적성에맞지않게된다.

제대한군인들은사회적으로유익한일터로돌아가기어렵다. 군에종사하는사람들은대개사회적하층민과출옥한사람들이다. 이들은삶이힘들거나개인적성향때문에군에들어가는경우가많다. 이들이군복무기간을마치고사회로복귀할때는이전보다더욱잔인해지고타락한상태라과거처럼다시범죄에빠질가능성이높다. 우리의감옥에들어온사람들중에군인이었던사람들이 많다는건잘알려진사실이다. 또군에입대하는사람중에는전과자들이많다.

애국심으로인한폐해가극명하게드러난사건이있다. 바로윌리엄부왈다(William Buwalda) 이등병과관련된사건이다. 부왈다이병은어리석게도군인의신분이면서인간으로서누릴수있는권리를제대로행사할수있다고믿었다. 그러나군당국은그를아주엄중하게처벌하였다. 그는 15 년동안자기조국에봉사했다. 이기간동안그의기록은깨끗했다. 부왈다의형기를 3 년으로감형시킨펀스턴(Funston) 장군의말을들어보자.

“장교든사병이든군의첫번째의무는무조건정부에복종하고충성하는것이다. 자신이그정부를인정하고말고는따질필요도없다.”

이렇게펀스턴장군은충성의성격을규정했다. 이사람의말대로라면군에입대하면독립선언문의원칙들이다폐기된다.

애국심이이상하게발전하여생각있는한인간이충성스러운하나의기계로변질되는것이다.

부왈다에게너무나가혹한형을선고하는이유를정당화하면서펀스턴장군은미국민들에게부왈다와같은행동은“반역에맞먹는중범죄”라고말했다. 부왈다는실제로어떤무서운범죄를범했는가?

그개요를요약하면이렇다. 윌리엄부왈다는 1 천 5 백명이모인샌프란시스코의한집회에참석했다. 그리고갑도없이연사인나에게손을흔들었다. 이것을두고펀스턴장군은‘무서운중범죄’라하여‘탈영보다훨씬더질이안좋은엄청난군사적범죄’를범했다고하는것이다.

부왈다의행동이한사람을범죄자로만들만큼애국심에어긋나는행동이라할수있는가? 이행동으로그를감옥에보내고, 15 년간충성한군복무의의미를다소멸시키는것이정당한가?

부왈다는조국에인생의황금기와청춘을바쳤다. 그러나그는아무것도얻지못했다. 애국심은이렇듯냉혹하고다른모든욕심쟁이괴물처럼모든것을다요구한다. 애국심은군인도자기의감정과견을표현할수있고, 취향과사상을가질수있는권리가있는인간이라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다.

애국심은군인에게이런인간적권리를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부왈다사건을통해배웠다. 비록값비싼대가를치렀지만이런교훈이라도얻었으니전혀무익하지는않았을것이다. 부왈다가석방되었을때군내에그가있을자리는없었다. 그러

지애국심을발휘해야하는형편이다. 애국심은국가에대한충성을요구한다. 이런맹목적인충성은부모와형제자매를죽일수있는태세를갖추고그런명령에도복종한다는의미이다.

외국의침략으로부터국가를지키기위해서는상비군이필요하다는주장이일반적이다. 하지만모든지식인은이주장이어리석은국민을검주고강제하기위해유지된하나의미신임을다한다. 세계의각정부는서로의이해관계를잘알고함부로침략행위를저지르지않는다. 전쟁이나정복에참여하는것보다국제분쟁을중재하는것으로더많은이익을얻을수있다는사실을각국정부는잘안다. 칼라일(Thomas Carlyle) 은이렇게말했다.

“전쟁이란겁이너무많아자기가직접나가싸울수없는두도둑놈간의싸움이다. 그래서이마을저마을에서젊은이들을모아군복을입히고무장을갖춰서로아수처럼싸우라고들판에내보낸다.”

모든전쟁의원인을추적해보면그원인이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스페인-미국간전쟁을예로들어보자. 이전전쟁은미국역사상상당한규모로전개된애국적사건으로기록될것이다. 우리미국인의심장은저잔악한스페인사람들에대해얼마나불타는적개심을가졌던가! 솔직히말하건대이런우리의분개는자발적으로불타오른것이아니다.

부처웨일러(Butcher Weyler) 가다수의점잖은쿠바인과쿠바여성들을난폭하게죽인사건이후신문의선동으로그렇게되었다. 소위정의에불타는미국국민들의적개심은높아졌고나가싸우겠다는분위기가되었다. 그리고실제로용감하게싸웠다.

그러나표연이자옥해지고전사자를파묻고전쟁비용이국민의부담으로돌아와생필품값과집세가뛰자, 즉애국적열기에서제정신으로돌아오자, 미국은들은갑자기스페인미국간전쟁의원인이설탕가격이라는생각을하게되었다. 보다명료하게말한다면스페인정부에의해위험을받은미국자본가들의이익을지키기위해미국민의생명과피와돈이이용되었던것이다.

이것은과장된이야기가아니다. 확실한사실과수치에근거한주장으로쿠바노동자에대한미국정부의태도에서입증된다. 쿠바가미국의손아귀에확고히장악되자쿠바를해방하기위해파견된미군들은전쟁직후에발발한담배제조노동자들의대규모파업때쿠바노동자들을사살하라는명령을받았다.

자본주의적이익때문에전쟁이발발한경우가이것만은아니다. 많은사람의피와눈물을흐르게한끔찍했던러일전쟁의비밀이벗겨지기시작했다. 이엄청난희생을요구한전쟁의이면에는아주엄청난상업주의의신이기도사리고있었다.

러일전쟁당시러시아총사령관이었던쿠로파트킨(Aleksey Nikolayevich Kuropatkin) 은전쟁이면에숨겨져있던진실을밝혔다. 러시아황제와의회는한국의토지와광산개발권을따내어거기에투자하고있었다. 그리고이전쟁을통해신속하게재산을모을수있는독점적권리를행사할수있었다.

육군상비군과해군력이평화를지키는최선책이라는주장은가장평화적인시민은중무장한시민이라는주장과같은논리이다. 일상적경험에서보듯이무장한개인은항상자기힘을과시하고자한다. 이런성향은역사적으로불때정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정말평화로운나라는평화를지킨다는명분으로생명과에너지를전쟁준비에소모하지않는다.

사실육군과해군을증강해야한다는강력한주장은외부로부터오는위협때문이다. 오히려내부에서점증하는대중적불만과노동자들의국제적연대에서비롯된정부의두려움때문이다. 여러열강들이대비하는것은내부의적을쳐부수려는것이다. 이내부의적은일단의식이각성되면어떤외부의침략자보다무서운적이될것이기때문이다.

수세기동안대중들을노예화해온열강들은대중들의심리를철저하게연구했다. 그결과일반적인대중은어린이와같아서작은장난감하나만줘어도절망과슬픔과눈물이기쁨으로돌변할수있다는사실을알아냈다. 그장난감의의상을더욱화려하게하고색깔을요란하게할수록대중이라는무수한어린이애들한테더잘먹혀든다.

육군과해군은사람들의장난감이다. 군대를더욱매력적이고종게만들고이런장난감을전시하는데수많은돈을썼다. 함대를구성하고그함대를태평양으로파견하는미국정부의목적은모든미국시민이미국에대해자긍심과영광을느끼게하려는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이태평양해군함대를유지하는데수십만달러를썼다. 로스앤젤레스는 6 만달러, 시애틀과타코마는약 10 만달러를썼다. 이함대를유지한다는말이무슨말인가? 고위장교들이멋진만찬을즐기는동안용감한수병들은음식을배고프지않게달라고반란을일으켰다. 남녀노소할것없이수많은사람들이미국전역에서굶주려거리에서쓰러지는데 26 만달러가불꽃놀이와극장파티와먹고마시고휴청거리는데쓰였다. 일자리가없는많은사람들이혈값에라도자신의노동력을팔지못하고있는데말이다.

26 만달러! 이런엄청난액수의돈을당신은평생만질수나있겠는가? 먹을것도잠잘곳도없는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타코마같은도시의아이들은이태평양함대를구경하러갔다. 이것을두고한신문은다음과같이언급했다.

“아이들에게영원히잊지못할추억.”

멋진배를구경하는일이잊지못할멋진일이긴하다. 문명화된살육장치를봤으니말이다. 어린이의마음이이함대를보고오염된다면참된인간적형제애를실현할소망이것들곳이어디있겠는가?

우리미국인들은평화를사랑하는사람이라한다. 우리는피뿌리는것을증오한다. 우리는폭력에반대한다. 그러나우리는비행기에서다이너마이트폭탄을무고한시민들에게떨어뜨릴수있다는사실에발작적으로기뻐한다. 경제적공핍때문에자기목숨을걸고대부호의집을터사람을우리는언제든지변호하기는커녕교수대에매달고전기의자에앉혀죽이고그것도아니면린치라도가할태세가되어있다.

그러면서우리마음은미국이지상에서가장강력한국가가되고궁극적으로는전세계모든국가를미국의강철군화하래짓누를수있다는생각에한껏가슴이부풀어있다.

이것이애국심의논리이다.

애국심의논리때문에일반인들이당하게될사악한결과들이이정도인데, 애국심의직접적피해자인군인들이당하게될모욕과상처는어떠하겠는가? 군인들은무지하고미신적인데서불쌍하게당하는미혹된희생자들이다. 조국의구원자요민족의보호자라는군인에게애국심은무엇을심어주었는가? 평화시에도노예같은복종과사악함과왜곡된삶을강요받는다. 그리고전시에는자기목숨을잃을위협에처하게된다.

최근샌프란시스코로의강연투어에서나는프레시디오를방문했다. 이곳은샌프란시스코만灣과골든게이트파크가굽어보이는너무나아름다운곳이다. 이곳은원래어린이들의놀이터와연약한사람들을위한정원과음악당이있어야할곳이다. 그런데이곳은병영이자리잡아추하고더러운회색빛을띠고있었다. 여기서젊은군인들이상사의군화와계급장이나닭으면서청춘을보내고있었다. 여기서도나는계급적구별을확인했다. 자유로운공화국의건강한아들이죄수들과같이일렬로서서위관급장교들에게경례를붙이고있었다. 미국의평등이란인간성을타락시키고군복을찬양하는것이아닌가!

병영생활은성적도착을발달시키는경향이있다. 미국의병영도유럽군과비슷한결과를양산하고있다. 성심리학에관한저명한저술가인하벨록엘리스(Havelock Ellis)는유럽병영의성도착증을철저하게연구했다. 그의글을인용하겠다.

“일부병영은남성의사창굴이다. 자신의몸을파는군인들의수는믿기지않을 정도로 많다. 어떤부대에서는대부분의군인들이돈을받고몸을팔았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여름밤에는하이드파크와앨버트게이트근처에서근위병과기타군인들이활발하게서로거래를하느라고분빈다. 이들은신분을숨기지않고병영안팎에서군복을입고성매매를한다. 대부분의경우이돈들은병사들의부수입이된다.

어느정도까지이런성도착현상이군내부까지침투했는지는별도의집이이런성매매용으로존재한다는사실에서충분히그실상을파악할수있다. 이런관행은영국에만국한된것이아니고보편적이다. 영국과독일에서뿐만아니라프랑스에서도군인들이몸을판다. 군대음용특별하우스가파리와군주둔지마을에존재한다.”

하벨록엘리스의연구에미국병영에관한연구도포함되었더라면이런유럽의여러나라에서벌어지는현상들이미국의육군과해군에서도동일하게유행한다는사실을알아냈을것이다. 상비군이증가하면서필연적으로이런성도착현상이확산되고있다. 병영은성도착증의온상이다.

병영생활은성적문제뿐만아니라군인들의제대후노동력활용에도문제를야기한다. 직업적기능이특출한사람은군에입대하지않으려하지만이런사람이군